“재일작가로서 역사·전통 잇고 싶었죠”

김석출-두드리는 기억展…5월26일까지 하정웅미술관 ‘5월 광주’ ‘유관순 연작’ 등 시대정신 담은 작품 선봬

전시장에서 만난 김석출 작가.

‘되돌아보는 유관순’

>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내 고향은 언제나 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항상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작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60여 년 간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이어온 재일작가 초대전이 마련됐다. 오는 5월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작가전 ‘김석출-두드리는 기억’이다.

하정웅미술관은 해외에 거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디아스포라 작가를 초대해 그 성과를 조명하고, 예술을 통한 역사와 문화 교류의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지난해에는 재일작가인 김영숙 씨를 초청해 전시를 진행했다.

올해는 하정웅컬렉션 작가로서,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재일작가 김석출을 초대해 전시를 꾸몄다.

전시는 시대 흐름별로 작가의 작품 주제를 ‘재일디아스포라, 김석출의 생애’, ‘미술에 입문과 재일의 인권’, ‘광주의 기억’, ‘되돌아보는 유관순’, ‘과거와 현재를 잇다’ 등으로 구성했다. 10대 후반에서부터 최근작까지 60여 년 동안의 예술세계 전체를 조망한 105점 작품과 아카이브자료 100여 점을 선보인다.

김석출 작가는 일제강점기 시대 이주와 해방, 조국 분단, 가난과 차별, 가족 이산 등 재일디아스포라 역사의 전형적인 삶을 경험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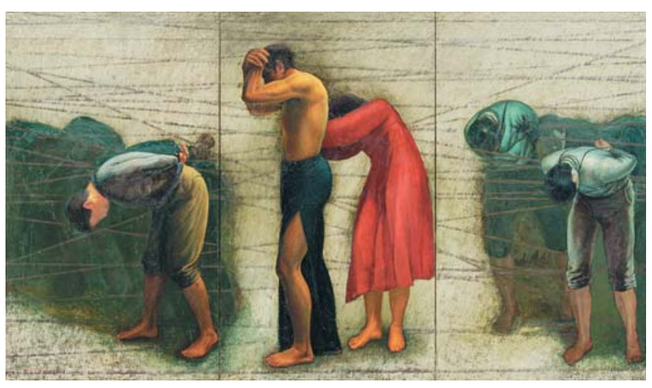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이자 전 생애를 아우르는 회고전 형식으로 구성됐다.

전시 초반부에는 작가의 자화상들이 여러 점 걸려있다. 이는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또 1970년대 유신 독재 시절 열사들의 당당한 모습이 엿보이는 회화도 눈길을 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과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다.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카이빙 자료들은 일본 도서관에서 수집한 기사들로, 1980년 5·18 항쟁 기간 작가가 참고했던 일본 신문들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으며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으로 20여 년 간 ‘5월 광주’ 시리즈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1980.5.27.’

그는 1980년 정치·이념적 경계를 넘어 재일작가들을 포괄한 단체 ‘고려미술회’를 창립했다. 1985년에는 ‘고려미술회 연구소’를 설립해 재일작가 육성에 힘썼다. 당시 재일작가라는 이유로 전시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차별적인 분위기 속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그는 끊임없이 재일과 민족을 둘러싼 불의와 부조리에 반응하며 이를 회화로 남겼다.

2층 5전시장은 작가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한 ‘유관순’ 연작을 소개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녀 열사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유관순의 맑은 정신을 담아내고자 한 작품들이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작가가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그린 작가의 동화책 삽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김희랑 하정웅미술관장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적인 삶은 그의 작품세계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재일로서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작가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며 시대의 불의와 부조리를 주시, 60여 년 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펜으로 그려낸 소소한 행복

서채은 ‘일일일작’(一日一作)展…8일까지 일곡도서관

‘정남진’

어반스케치 작가 서채은의 개인전 ‘일일일작’(一日一作)이 오는 8일까지 일곡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작가가 어반스케치를 통해 그려낸 평면 회화, 펜드로잉을 포함한 약 50여점과 20여권의 드로잉북을 선보이는 자리다.

어반스케치는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 혹은 여행 간 지역을 ‘현장’에서 그리는 그림이다. 집이나 카페 혹은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풍경을 보고 그 느낌을 그리며, 그곳의 이야기를 즉석에서 담아내는 것이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작가는 광주를 포함한 서울, 담양, 장성 등을 다니며 그곳의 느낌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려냈다.

전시 주제와 같이 작가는 어반스케치를 시작하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주변 가까운 곳을 드로잉북에 담아냈고, 작가가 평소 그려보고 싶었던 풍경과 특별한 경험을 간직한 공간 등을 그려냈다.

또 전시에서는 작가가 그동안 현장을 다니며 그려낸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그만의 특별한 펜담채(펜으로 스케치한 후 마카나 흑연 등으로 마무리)로 담아낸 작품들과 그림 그리는 현장 사진 영상, 드로잉북, 어반스케치 도구 등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윤민화 광주예술공감연구소 대표는 “서채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일상에서 느꼈던 소소한 행복이 관람객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CC재단, ‘2024 댄스비전’ 국제유통상 수상

‘호모 루피엔스’ 해외 유통…한국 현대무용 세계화 기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한 ‘2024 댄스비전’ 시상식에서 국제유통상(IDD Award: Int’l Dance Development)을 수상했다. (사진)

‘댄스비전’은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무용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무용 시상식이다. 예술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 받고 있다.

ACC재단은 지난해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를 미국 2개 도시에 유통하고, SCF 현대무용축제에서 해외 유통 우수작으로 초청받아 공연을 올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ACC재단은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며 한국 현대무용의 세계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모 루피엔스’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유희성에 초점을 맞춰 미래 인간의 자화상을 그려낸 무용극이다. 예술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 받고 있다.

2020년 시범공연 이후 대구와 고양국제무용제, 프랑스 숨 페스티벌, 파리르 갸르드 시뇽 무용축제, 헝가리 베틀렌 스퀘어 시어터 국제무용축제, 미국 뉴욕 올 오브 서울, 미국 시애틀 국제무용축제 등 국내외에서 잇따라 초청 공연을 펼치며 무용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명진 기자